장흥군 '특이민원 현장 대응능력' 향상 위한 모의 훈련 실시

민원인 폭언·폭행 상황 가정 공무원·청원경찰 등 18명 참여

비상대비 대응반 각각 임무 현황·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등 확인

장흥군은 최근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공무원, 청원경찰 등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 폭행 상황을 가정한 특이민원 비상대응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모의 훈련은 민원업무 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계획됐다. 이날 훈련을 통해 민원실 비상대비 대응반에 대한 각각의 임무 현황과 긴급 상황 시 민원실에 설치된 비상벨 위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경찰의 신속 출동 협조 체계를 확인해 유사시 직원과 방문 민원인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시 체계적인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매년 정기적으로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진도군, 산불원인 근절 '무단 소각' 제로화 추진

농지·등산로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등 45명 집중 순찰 강화

진도군이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논·밭두렁 태우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소각 산불 제로화 현장 캠페인을 펼쳤다. 최근 열린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버스터미널과 재래시장, 주요 등산로 등에서 열렸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는 농사와 무관함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부하고, 농업 경영 활동 후 남은 부산물을 환경산림과에서 추진중인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사업 등으로 파쇄 처리 해줄 것을 홍보했다.

군은 소각 산불 원천 차단을 위해 산불예방전문진화대 45명을 투입해 농지와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역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산불임차헬기 1대를 배치해 관내 16개 산 7,477ha의 순찰과 입산통제구역 지정, 등산로 9개구간 29km 폐쇄 등 산불방지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에는 잠깐의 방심과 사소한 부주의로도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5년간 산불 발생의 70%가 무단 소각으로 인해 발생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주변 소각 행위 등을 금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실수로 낸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해남 화원조선산업단지 해상풍력발전 전진단지로 조성

명현관 군수, 대한조선 방문, 기업유치 방안 등 논의

해남군이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발맞춰 화원조선산업단지에 관련 산업을 유치, 배후단지로 활용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3일 대한조선(주)을 방문해 화원산단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해상풍력발전 핵심 기자재인 블레이드, 하부구조물 등 투자의향 업체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명군수는 정대성 대한조선 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조선소 내 기반시설과 미개발 부지를 해상풍력 구조물 건조 시설로 활용하는 등 관련 기업의 유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화원산단 활성화 방안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조선은 대불산단에 위치한 내업공장을 화원조선산업단지로 이전할 계획으로, 직원 1500여명의 인구 유입과 산단 활성화를 통한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명 군수는 화원 구림리에서 매월리간 2.9km 진입도로 개설 등 산업단지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또한 대한조선 관계자들과 함께 화원산단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기업유치를 위해 민관이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화원조선산업단지는 총면적 205만5,622㎡, 분양면적 198만3,470㎡에 달한다. 2024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산업단지에 조선업뿐만 아니라 금속가공 제조업 등 업종을 추가해 해상풍력발전 기자재 생산의 여건을 마련했다.

해남군은 화원산단에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물류 기지 확보와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정부의 그린 뉴딜정책과 전남 블루이코미 비전에 대처하는 친환경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명현관 군수는 "화원조선산업단지는 전남 해상풍력 물류의 최적지로 전남도와 협력하여 해상풍력발전 제조업체를 적극 유치해 신안 해상풍력발전 배후단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군 "견과류 웰빙숲 등 지역특화조림 본격 추진"

단기 산림소득향상 위한 개암나무(헤이즐럿) 식재

강진군은 산림의 공익성을 증대하고 단기 산림소득작물 육성을 위한 특화조림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역특화조림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포함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3월부터 견과류 웰빙 숲 1개 지구, 4ha와 황칠 특화숲 2개 지구, 12ha에 조림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 공모사업에 선정된 '견과류 웰빙 숲 조성사업'은 커피향이 좋은 개암(헤이즐럿)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다. 우리에게 헤이즐럿이라는 이름으로 더욱더 친숙한 개암은 옛날 농촌에서는 '깨금'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였으며, 커피 가운데 향이 좋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헤이즐럿 커피가 바로 이 개암을 볶아 만든 커피다.

강진군은 앞으로 호두, 비자, 페칸 등의 견과류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림소득작물 육성을 위한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재영 해양산림과장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임산물 수요에 부합하는 산림소득작목 육성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신우철 완도군수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동참합시다"

신우철 완도군수가 지난 2일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SNS 릴레이 캠페인 '고고(Go Go)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 1월 前 조명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작한 것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약속한 뒤 다음 릴레이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 군수는 "우리가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으로 인해 동·식물은 물론 인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시기는 먼 미래가 아닌 곧 현실이 될 수 있다."며, "다 함께 탈 플라스틱을 실천하여 깨끗한 자연환경을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

고 말했다.

완도=이민혁 기자